



## 국내 자동포장기 발전 일익 담당 엄격한 자체 심사로 최상 품질관리 유지

안웅권 / 서광기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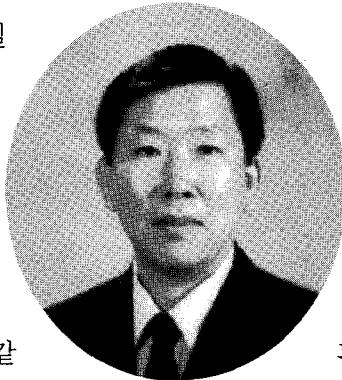
**제** 3회 한국포장기계대상 품질 생산 부문으로 선정, 오는 10월 10일 제4회 포장기계인의 날에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서광기계 안웅권 사장을 만났다.

“먼저 서광기계가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국내 자동포장기 발전을 위해 더욱 전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안 사장은 “현장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결같이 자동포장기 업계에 종사해온 것이 오늘의 결과를 낳게 된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기계를 전공한 안웅권 사장은 국내 포장자동화라는 개념이 없던 25년여 전, 제약포장기 업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엔지니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던 중 그는 1984년 우연히 해외전시회를 참관하게 됐고, 선진국들의 기계를 보며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된다.

“국내 기계 산업이 그 정도로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자극이 됐습니다. 해외 전시회



를 본 이후 ‘내가 회사를 창업하게 된다면 반드시 선진국보다 앞선 기계를 생산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1994년 서광기계 창업을 계기로 독립하게 된 안웅권 사장은 그간 갈고 닦은 기술력과 장인정신, 그리고 국내 포장기계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기반으로 자동포장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지난 1996년 용기정렬기 개발을 시작으로 첫갈류 충전 포장라인, EXCEL BAG 충전기, 로봇 케이스 팩커, 다품종 소·대량 시스템, 다용도 캠핑 머신, 중력식 충전기, HIGH SPEED REFILL POUCH FILLING and SEALING SYSTEM 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전 세계를 통털어 독일, 일본,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만 개발·제작해 왔던 로봇 케이스 팩커 개발을 서광기계가 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포장기술의 위상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서광 기계는 기술력을 인정해 주는 대

## 전문 아이템 개발로 과당경쟁 줄여 나가야...

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 국내의 생수, 세제, 장류, 화장품, 윤활유, 액젓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을 완벽하게 자동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계 개발로 업계 선두주자로 안정받고 있다. 그 결과, 1999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술개발 시범 기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올해 1월에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국내 IMF로 시장경기가 위축됐던 지난 1997년, 일본 및 유럽 수출을 시작한 이후 2002년 현재, 지속적인 타겟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 대리점과 바이어 발굴까지 시도하고 있다.

안용권 사장은 철저한 품질관리가 서광기계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기계 한 대를 수출할 때마다 '고품질'만이 성공의 보증수표라고 확신하며 일했습니다. 출고를 하기 전에는 납품기일이 늦어지더라도 언제나 엄격한 자체 심사를 통해 철저하게 제품관리를 했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 신뢰를 쌓는 것만이 업계에서 강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안 사장은 업계에 불고 있는 과당경쟁에 대해서는 가격저하를 유도하는 엔드유저들의

'경쟁부추기기'를 지적하면서, 업계마다 전문화된 아이템 개발로 룰(rule)을 지켜나간다면 과당경쟁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자부심'과 서광의 기계가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서광인(人)들과 함께 일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단순히 기계를 팔기 위한 세일즈맨이 아닌 계약된 기계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납품된 기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느 곳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용권 사장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해외 전시회에서 한국의 기계를 최고 가치로써 알릴 수 있는 그 날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도전과 개발 정신으로 서광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안용권 사장.

TV·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포장기계를 홍보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반문하는 안 사장이 독특한 발상전환과 참신한 기술 개발로 세계적인 포장기계 강자로 우뚝서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